

# Center for Business as Mission

## Annual Report 2020

[www.centerforBAM.com](http://www.centerforBAM.com)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61:3)

이 자료는 Center for BAM (CBAM) 의 2020년 사역보고를 이사회 및 CBAM 의 이해관계자들이 리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전에 허락없이 외부공개나 복사 전재를 금합니다. 이사회와 자문이사들의 의견과 감수 후, 이 자료는 외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Center for BAM Management Team작성

작성일자: 2020년 12월 10일

[TCFbam@gmail.com](mailto:TCFbam@gmail.com)

## TABLE OF CONTENTS

- i. 공동대표 인사
- ii. 20120년 CBAM 사역 정리
- iii. 2020년 사역 평가와 2021년 사역 우선순위
- iv. 재정 정보
  - 2020년 정산
  - 2021년 예산

## I. CBAM 공동대표 인사

2020년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고도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킨 COVID19 팬데믹의 발현과 함께 시작하여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온 인류의 고통스럽고도 혼란스러운 싸움과 노력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저희 CBAM도 이 영향에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3월에 계획된 CBAM 이사과 스텝 미팅과 6월에 계획된 태국의 JES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메이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2:9), 이 팬데믹의 상황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으며 (에베소서 4:6), 팬데믹 이후에 펼쳐질 세상과 교회 속에서도 선교의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시며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골로세서 1:20). 올해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앞에서 저희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발전해가는 참으로 축복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7월 31일에 온라인으로 열린 2020 CBAM 연간 컨퍼런스를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급박히 변해가는 세상과 선교적 환경에 대하여 선교, 비즈니스, 교회, 가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과 소망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고, 다음 다음날 8월 1일에 이어진 연간 스텝CBAM 미팅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사역해 갈 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지향하며 준비해온 선교적 방향성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에 맞이할 변화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앞으로 이 선교적 변화를 돕기 위하여 더욱 집중하고 연합하여 섬겨야 할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아보면 CBAM과 모든 프로그램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활발하게 비즈니스 제국 속에서 믿음과 삶이 통합된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 지역교회들과 동역단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움직이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돕는 교회로서의 CBAM 스텝과 동역자들도 정기적인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 교회로 예배하고 성장하고자 “올리브나무” (Olive Trees)라는 월별 온라인 정기 모임을 9월부터 갖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기초로하는 JBS (Joshua Business School)는 세상 속 제자도 라는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남가주, 뉴저지, 캐나다의 켈거리 등 북미의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올해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영어권과 선교지 지원을 위해서 교육내용에 영문자막을 넣는 프로젝트도 모두 마쳤습니다. JES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도 6월에 계획했던 태국 카렌족 대상의 현지 방문 창업교육을

변경하여 온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관계를 갖게 된 파키스탄 라호르의 비즈니스 공동체와 연결되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사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JES 프로그램과 선교지 현지 교회와의 연결과 교류가 확대 되면서 선교 전후방을 연결하는 CRN(Christian Resource Networks) 사역도 함께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세상 속 제자도를 통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지역 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일도 2020년도에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선한청지기 교회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 개최된 컨퍼런스와 세미나의 개최를 돕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BAM의 비전을 나누고 선교적인 삶을 소개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움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민족들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시며 통일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제자들, 선교적 교회공동체들을 세우고 돕는 저희들의 사역은 2021년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에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함께 돕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동역이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명구 드림

## II. 2020년 CBAM 사역정리

CBAM 의 사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Joshua Business School (JBS) 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현대의 도시, 비즈니스 문화 가운데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Jubilee Entrepreneur School (JES) 는 복음이 필요한 문화권에서 비즈니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주일간 열리는 오프라인 창업학교입니다.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은 타문화권에서 운영하는 BAM 기업을 재능과 자원을 가진 분들과 연결하여 협력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킹 사역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CBAM 전체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속에서 각 팀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더욱 깊이 확장하고 뿌리내려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 Joshua Business School

올 한해 코로나 팬데믹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기초한 JBS는 비교적 활발하고 꾸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가주 주님의 빛 교회, 켈거리 한우리교회, 남가주 베델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등 이미 JBS를 진행하던 교회에서는 올해도 계속하여 새로운 스쿼드가 만들어져 진행되면서 교회 마다 세상속 제자도의 훈련과 실천이 더욱 뜨겁게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선한칭지기 교회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올해 처음으로 20여명의 교회 리더십이 뜨거운 반응과 풍성한 나눔 속에 JBS를 마쳤으며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한국, 워싱턴 디씨 지역에서 지역교회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JBS가 진행되었고, 볼티모어 벨엘교회에서는 “삶터 사역”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100명 이상이 JBS를 수강하였으며 약 6200번 이상의 동영상 강의가 상영되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영어권 회중이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여러 선교지에서 삶과 믿음이 통합된 현지인 제자들을 세워야 할 다양한 필요들이 증가 됨에 따라 영어 JBS에 대한 요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CRN과 협력하여 JBS의 영문 번역 및 자막 제작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하여, JBS가 지역교회 뿐 아니라, 영어권 회중 속으로 그리고 지역과 민족을 넘어 전체 교회 가운데 확장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JBS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어감에 그 내용을 코로나 팬데믹 이 후의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무엇보다 지역교회의 선교적 제자훈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JBS의 내용을 교회 내의 일반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JBS의 내용과 학습 방식을 대폭 수정하여 JBS 4.0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JBS는 그 깊이와 사역의 영역을 전후방으로, 다음세대로 더욱 확장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 Jubilee Entrepreneurship School

JES 는 선교지에서 진행되는 BAM 창업 학교 사역입니다. 올해에도 김진수, 박한별, 유현석, 이민동, 오규원, 이이삭, 장영희 7명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함께 사역을 계획하고 섬겼습니다. 올해에는 오레곤에 거주하시는 오규창님께서 새로 JES 팀에 합류를 하셔서 JES 총무 업무를 맡아 주고 계십니다.

2020년도 JES 후보지로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 태국 Karen 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생산회사인 Karen Group Company (<http://www.karen-group.co.th/>)에서 JES School을 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JES는 창업 교육이 아닌, Karen Group Company의 직원들을 상대로 경영과 관리, 마케팅, 재무 등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2020년 5월 초 태국을 방문하여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태국에서 열리는 BAM Global Congress에도 참가하여 CBAM 및 JES 사역을 소개하고 Global Network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모두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한대로 JES의 사역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JES 사역의 중요한 두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JES의 사역이 BAM 창업 교육 중심이었다면, COVID-19를 겪으면서 선교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역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현지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방식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2년 시작된 JES 사역이 지난 8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 COVID-19으로 잠시 멈추었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식의 JES 사역이 발견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지원.** JES사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은 첫째, BAM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둘째, 성경적 세계관과 비전을 공유하며 동역하는 BAMer 예비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수행하였던 한인 선교사님과 학생, 그리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첫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현지의 프로젝트 지원은 두번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JES에서는 2018/2019 파키스탄에서 창업교육으로 섬겼던 형제 자매들 및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슬림을 포함한 현지인들을 지원하는 3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첫번째는 Kahani Sunao라는 영상제작 업체를 통하여 라마단 기간 중 식량, 마스크 등 COVID-19 극복에 필요한 용품을 크리스찬 및 무슬림을 포함한 약 500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영상: <https://bit.ly/37pstli>) Kahani Sunao는 2018/2019 JES에 모두 참석하였던 Naveed Hameed 형제가 창업한 회사로 2019년에는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컨설팅도 수행했던 회사입니다. 두번째 프로젝트는 Forman Christian College의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시는 Asim George 교수님을 통하여 5인 가족이 15-20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Fool Bags을 85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7개의 마을에 거주하는 약 425명의 크리스찬 및 무슬림 파키스탄인들을 어려운 시기에 귀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지원한 프로젝트는 정마태 선교사님이 수행하셨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Lockdown이 확대되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총 99가정에게 일용할 양식과 기본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18/2019 JES 교육에 참여했던 온성도교회 고아와 과부, 벽돌공장 크리스찬 등도 전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2020년 5월에 계획했던 태국 Karen족을 대상으로 한 대면 JES Program이 COVID-19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내년 방문 교육 전에 기본적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먼저 교육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현재 (1) Introduction, Biblical Foundation of Business, (2) Mission and values, (3) Customers, (4) Strategy, (5) People, (6) Economic Sustainability의 주제로 5주 온라인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코스의 장점은 첫째 같은 기간에 여러 지역을 섬길 수가 있고, 둘째 온라인 강의 이후 대면 교육을 위한 방문으로 방문시 현지 기업방문 컨설팅 혹은 프로젝트 수행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서 어떠한 새로운 사역과 방향이 결정될지 기대해 봅니다.



##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CHRISTIAN  
RESOURCE  
NETWORK

CRN 은 전방과 후방을 연결하여 BAM 기업들을 돕는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전통적으로 CRN에 등록된 BAM 회사가 CRN 프로젝트를 요청하면, 적절한 자원 제공자를 연결시켜 드리고 제안해 주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미국의 영어권과 해외의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CRN 네트워크를 통하여 JBS 프로그램의 영문 자막 제작 및 교재 영문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JES 프로그램과 선교지 현지 교회와의 연결과 교류가 확대 되면서 선교 전후방을 연결하는 CRN 사역도 함께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JES를 통하여 동역해 온 파키스탄 라호르의 Forman Christian College가 인수하게 된 TSA (Technical Services Association)와 연결되어 숙박, 특수교육, 봉제 비즈니스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파키스탄의 커뮤니티 사역과 후방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관련동영상: [https://youtu.be/V49A7Y2\\_ISQ](https://youtu.be/V49A7Y2_ISQ)). 앞으로도 전방과 후방에 인력과 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하여 선교적 교회 공동체와 BAMer들의 선교적인 삶을 돕는 다양한 사역을 개발하고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 III. 2020년 사역 평가와 2021년 사역 우선 순위

저희가 올해 발간했던 2020 Annual Report 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전략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지역교회들의 선교적 변화와 선교적 삶의 훈련을 지원
- 협력교회와 협력단체들과의 동역과 지원 체제 강화
- 후방의 도시와 전방 선교의 연결 확대
- 내부 역량 강화

코로나 팬데믹의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 네 가지 우선순위 가운데 첫번째 우선순위인 선교적 지역교회를 세우고 돕는 사역에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히 7월 말에 있었던 CBAM 연간 온라인 컨퍼런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욱 가속화될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제자도의 필요성을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며, 3월 부터 4번의 세미나를 통하여 캘리포니아 선한 청지기 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도울 수 있었고 교회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JBS를 함께 나누며 내년 부터 보다 본격적인 선교적 제자들을 세우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여러가지 모습으로 동역하였던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올해 부터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결단하며 시작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도 CBAM이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며,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J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세상 속 제자의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동안 JBS를 목회와 접목시켜 진행해 왔던 남가주 주님의 빛 교회와 베델교회, 케나다 켈거리의 한우리 교회 등에서도 지난 한해 JBS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성도들과 지역교회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동역은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며 2021년도의 사역 방향에 중요한 인도하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우선 순위도 올해 꾸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년간 지역교회들의 선교적 변화를 지원했던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지역교회들과의 협력관계로 변화되어 케나다 켈러리 한우리 교회, 남가주 주님의 빛 교회, 뉴저지 초대교회에 이어서 올해에는 남가주 베델교회와 선한 청지기 교회가 협력교회가 되어 현재 5개의 지역교회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동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주 외에도 한국 IBA, 한국 인터서브, 국제 로잔운동, The Bridge, Synergy for Kingdom (sfk), The Able Ministry 등의 국제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연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JES 프로그램이 선교지의



지역공동체로 주 대상을 바꾸면서 새로운 단체와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파키스탄의 Forman Christian College, Pakistan Business Community, Kahani Sunao 등의 단체와 관계를 맺어가고 최근에는 Forman Christian College가 인수하게 된 TSA (Technical Services Association)의 사역 과도 연결되어 파키스탄 내부의 크리스찬 단체들과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고, 올해 JES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던 태국의 Karen족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협력단체와도 연결되었습니다. JES가 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을 넘어 현지 지역교회나 단체들과의 연결과 협력을 열어주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우선 순위인 이 곳 도시의 선교적 공동체와 전방 선교를 연결하는 노력은 작지만 분명한 인도하심 속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게 된 한 해였습니다. 먼저 JBS도 후방의 도시뿐 아니라 선교지의 현지 교회 성도들을 삶과 신앙이 통합된 영향력 있는 제자들로 훈련하고자 JBS의 영어 번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는 다시 현지어로 번역되어 보급될 예정입니다. JES 도 올해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오히려 과거 2년 동안 파키스탄 현지 교회 성도들과 연결된 관계를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도울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고, TSA와 같은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면서 더욱 활발하고 폭넓은 교류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JES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지 현지인들과 그 교회를 지원하고 교육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를 CRN에서 함께 개발하여 확장해 간다면 전후방을 연결하는 우리의 노력도 더욱 활발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우선순위인 내부 역량 강화는 먼저 이사진의 결속과 보강 뿐 아니라 이사들의 사역의 참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차원에서의 후원이 증가하여 재정 구조도 안정화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 시작된 “올리브 나무”라는 월별 온라인 정기 모임을 통하여 스텝들의 자원봉사가 장기화 되면서 스텝들을 돌보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무를 감당할 실행팀의 보강이나 유급봉사인력을 찾고 사용하는 것에는 큰 진전이 없었으며 내년에도 계속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2021년도 CBAM의 사역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Renewed Focus: 세상 속에서 총체적인 선교적 삶을 사는 제자들을 세운다!**

올해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소망하였고 앞으로도 집중해야 할 우리의 방향성은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새로운 세대, 즉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저희의 프로그램이 이미 이 일을 돕고 있지만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을 세우는 일은 단순한 교육과 훈련 이상의 더욱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첫째로, 지금 CBAM의 모든 사역과 조직,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 방향성에 맞게 다시 평가하고 집중, 개발 수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된 기관과 단체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적 교회 공동체 -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격려하며 진실하고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작은 교회 공동체와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뛰는 리더들 - 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저희의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우선순위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 **2. 지역교회들의 선교적 변화와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협력**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BAM운동이 단순한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과 맥을 같이하여, BAM을 통한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이 선교적 교회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고 동시에 선교적 교회는 BAM 운동에 뿌리내리고 확장될 수 있는 모체가 됨을 배워왔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함께 하는 여러 지역교회들을 특히 북미주의 여러 도시에서 갖게 하였고 함께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이제는 서로에게 큰 힘과 유익한 자원이 될 교회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첫째는 이러한 선교적인 지역교회들이 늘어가도록 지역교회들을 지원하고 CBAM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역교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돕는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마다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컨퍼런스나 포럼을 주관 하거나 지역교회들이 서로 세상 속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관련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지역교회 안에 선교적 제자도와 소그룹을 세워가는 것을 돕기 위하여 JBS의 내용을 지역교회 내의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한 적용이 가능한 형태와 방법으로 수정하여 보급하려는 노력은 내년에도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JBS 4.0을 개발하여 지난 10년간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할 뿐 아니라, 적용의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학습과정의 효과성을 향상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이 훈련프로그램 이전에 필요한 기초프로그램이나 훈련 이후에 함께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과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노력은 JBS 뿐 아니라 JES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단순히 창업훈련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프로그램 이후에도 선교지의 지역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일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 3. 온라인 역량, 온라인을 통한 창의적 소통, 훈련, 만남 강화와 활용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상의 수 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바꾸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장소적 시간적 장벽을 넘어 새로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 예상됩니다. JBS는 이미 2013년도 부터 온라인 프로그램 화 되었고, JES도 올해 부터 온라인화 되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앞서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를 봅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총체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단체들의 만남과 나눔을 위한 공통의 온라인 공간(플랫폼)을 뜻을 같이하는 교회와 단체들과 함께 구축하여, 교제와 나눔, 교육과 훈련, 정보와 자료의 공유, 선교프로젝트의 공동개발과 진행 (CRN)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4. 내부 역량 강화 - 실무팀의 확대와 강화

올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은 저희 CBAM이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단체이지만 동시에 저희가 바로 교회이며, 저희도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돌보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하여 올해 시작된 “올리브 나무”라는 온라인 정기 모임을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또한 핵심인력의 보완과 함께 동역 할 팀원들과 봉사자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식중이거나 봉사가 힘든 스텝들을 대신할 새로운 스텝을 리크루트 하고 팀 안의 결속을 강화하며 조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봉사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사역들은 CRN 프로젝트화 하여 유급 봉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2020년의 총 수입과 지출은 각각 \$26,455.46과 \$13,937.40 으로 작년도 수입과 지출이었던 \$3,755.00과 \$16,814.24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감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킨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아지며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리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를 준비하며 핵심사업의 개발과 강화를 위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해도 여러분들과의 동역이 있었기에 이상의 사업들이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동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온전히 모든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 1:6)**

#### IV. 재정보고

##### A. 2019년 재정보고 (2019.1.1~2019.12.31)

수입/지출	Team	사역내용	금액 (USD)	합
수입	CBAM	정기후원	\$12,000.00	\$18,505.00
		일반후원	\$6,505.00	
	JBS	등록비	\$250.00	\$250.00
		후원	\$0.00	
	JES	등록비	\$0.00	\$15,000.00
		후원	\$15,000.00	
	CRN	CRN Project	\$0.00	\$0.00
총수입				\$26,455.46
지출	CBAM	연례/월례 스텝 미팅	\$200.00	\$2,116.03
		연례 컨퍼런스 비용	\$0.00	
		웹구축비 및 행정	\$724.08	
		IBA 이사회비	\$262.75	
		Accounting 시스템	\$840.00	
		기타	\$89.20	
	JBS	JBS 웹 운영비 및 행정	\$21.17	\$3,581.37
		JBS 영어번역 프로젝트	\$3,500.00	
		사무 및 행정	\$60.20	
	JES	선교지원	\$8,000.00	\$8,000.00
	CRN	CRN Project	\$0.00	\$0.00
총지출				\$13,697.40

Note: 저희들이 2020년 1월 1일 시작할 때의 현금 잔고는 \$57,998.70였으며, 12월 31일의 잔고는 \$63,416.16로 예상됩니다.

**B. 2020년 예산 (2021.1.1~2021.12.31)**

수입/지출	Team	사역내용	금액 (USD)	합
수입	CBAM	정기후원	\$18,000.00	\$23,000.00
		일반후원	\$5,000.00	
		등록비	\$1,000.00	
	JBS	후원	\$0.00	\$1,000.00
		JES	등록비	\$0.00
	후원		\$11,000.00	
	CRN	후원	\$0.00	\$0.00
총수입			\$35,000.00	\$35,000.00
지출	CBAM	스텝 미팅	\$5,000.00	\$17,000.00
		CBAM 컨퍼런스 비용	\$5,000.00	
		웹구축비 및 행정	\$5,000.00	
		예비비	\$2,000.00	
	JBS	JBS운영과 행정	\$500.00	\$5,000.00
		교육 개발 및 지원	\$4,500.00	
	JES	JES 프로그램 2021	\$5,000.00	\$11,000.00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1,000.00	
		선교지 사업 및 사역 지원	\$5,000.00	
	CRN	프로젝트 지원	\$2,000.00	\$2,000.00
총지출			\$35,000.00	\$35,000.00

Note: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활동 감소로 20%정도 낮게 책정했습니다. 또한, CBAM 전체 차원에서는 올해의 핵심 사역, 즉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재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CBAM 내에서 있을 모든 유급 봉사는 CRN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비가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함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